나는 달린다,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 서울보증보험 홍성표 상무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홍성표 서울보증보험 상무는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한 마라토너다. 그의 마라톤 완주는 혼자만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1m 달릴 때마다 1원씩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그가 추진했던 '사랑의 마라톤' 행사도 겸했다. 그는 혼자 달린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뛴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홍성표 상무(50)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회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러닝머신을 타며 달리기 위해서다. 햇수로 2년째다. 주말이면 가족이 살고 있는 대전에 내려가 갑천변에서 아침공기를 가르며 15㎞를 뛴다. 생물학적 나이로 치면 초로의 문턱을 넘었다. 철학적으로 따지면 하늘의 명을 깨닫는다는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니, 지나온 세월을 곱씹으며 안락한 삶을 누릴 법한데, 그에게 아직은 한가하게 제자리에 멈춰 서서 뒤돌아볼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는 놀랍게도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한 마라토너다. 지난해 4월 14일 전주 ~ 군산 국제마라톤에서 42.195㎞를 4시간 20분만에 주파했다. 생애 첫 도전이었다. 올해 세워진 마라톤 세계신기록 2시간 4분 55초에 비하면 턱없이 느린 속도지만, 그것이 무슨 대수랴.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남들과 다투는 '기록'이 아니라 한없이 무거운 대지의 중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만의 '기억'이었다. 그에게는 기념할 만한 일이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뛴 마라톤

그런데 그의 마라톤 완주는 혼자만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1m 달릴 때마다 1원씩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그가 추진했던 '사랑의 마라톤' 행사도 겸했다. 그는 혼자 달린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뛴 것이다. 그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2개월 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자신이 풀 코스를 완주할 때 1구좌당 42,195원의 금액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였다.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해주었다. 그 결과 그해 5월까지 259구좌 약 1천 1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후원금은 사랑의 집, 한우리쉼터, 꽃동네부설 천사의 집 등에 뜻 깊게 쓰였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10구좌로 후원해주는가 하면, 제가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기꺼이 후원금을 내주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보람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랑의 마라톤은 그 후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 미약했고 회사의 중책까지 맡다 보니 운신의 폭이 넓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뛰면서 좀더 큰 힘을 모으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가 당분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뜻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가 마라톤으로 발걸음을 뗀 것은 지난 2001년 초부터였다. 계기는 소박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는데,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지 잔병치레가 늘었다. 건강관리를 해야 할 때라는 신호였다. 때마침 회사의 모 부장이 마라톤을 해보라고 권했다. 달리다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충고였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다. 2㎞, 5㎞, 10㎞ 등 거리를 늘려가며 달렸다. 그러다 마라톤의 마력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다.

"회사생활하면서 아침운동하기가 쉽지 않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음 날 아침에 뛰다 보면 노폐물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달리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아이디어가 풍부해진다는 게 달리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의 달리기 예찬론을 듣다 보니 앰비 버풋의 말이 떠오른다. 1968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자이자 마라톤 잡지 《*러너스 월드*》 편집장이었던 버풋은 최근 번역된 《*달리기가 가르쳐 준 15가지 삶의 즐거움*》에서 "마라톤은 신체를 정화시킬 뿐 아니라 머릿속 생각을 명확하게 해준다. 달리기가 분화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달리기만큼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혼연일체가 되는 운동도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서로 겹친다.

달리기는 질주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에 맞닿아 있다. 그는 내친김에 마라톤 대회에도 도전했다. 2001년 8월에는 변산하프마라톤 대회, 10월에는 광주 김치마라톤 대회 등에 참가해 21㎞를 뛰었다. 혼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운동이었다. 그는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중부지역 본부장을 맡았을 때는 직원들과 동호회를 조직했다. 1주일에 한번씩 20여명과 함께 갑천변을 달렸다.

"달리기는 가정과 직장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의 건강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문화도 변했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놀랄 만큼 친밀해졌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의 생애는 마라톤처럼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97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부터 1979년까지 말단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재무부 세제국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그 사이 야간 대학을 다녔으니 그는 이른바 주경야독파였다. 대학졸업 후 큰 뜻을 품고 고시에 매달렸지만 낙방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지난 2001년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정절차의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게다가 1981년 말단사원으로 출발해 상무이사까지 올랐으니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삶이었다.

▲ 서울보증보험 홍성표 상무

살아온 생애가 고단했던 사람은 인색한 수전노가 되기 십상이다. 한 문예비평가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자신의 재산을 믿지 못한다. 자신의 부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옛날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공포에 젖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 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까지 포함해 그의 재산을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다.

"저는 성장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현재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니죠. 제가 받은 것을 언젠가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잘 쓰는 것은 예술 아니겠어요."

그의 이런 인생철학은 회사경영에도 스며들어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보증보험회사는 개인과 기업체의 신용기능을 보장해주는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최근 그의 요청으로 장애인을 채용한 것이나, 회사차원에서 매달 한번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그의 철학이 반영된 사례다.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은 누구나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달린다는 행위도 그 뜻이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는 것은 이제 진부한 비유가 되어버렸지만, 홍성표 상무의 인생 마라톤은 결코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는 줄곧 여러 사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의 마라톤 인생이 아름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KOVA